

베이비부머를 통해 본 은퇴자산관리의 방향

김진영* (은퇴자산관리연구소)

Abstract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1차 베이비부머가 65세를 넘어가며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들어간다. 그런데 고령화의 질은 은퇴와 노인 사이인 “은퇴 크레바스”기간 중의 은퇴자금관리 문제이다. 1차 베이비부머의 지난 10년간 은퇴자산 운용 경험의 특징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배분, 소극적 금융자산 운용, 은퇴자산의 양극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에도 소득활동이나 대출에 기반한 적극적 부동산투자로서 이전 세대 보다는 자산조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은퇴 크레바스”기간 중의 은퇴자산 운용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먼저 은퇴설계를 통해 자신의 은퇴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은퇴생활에 들어갈 필요자금의 범위를 추정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은퇴자산 관리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은퇴교육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결정 지원과 실행중심의 실질적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신탁업 및 My Data 서비스 등의 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¹⁾로 들어가고 있다. 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그 속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갔고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7년만에 진입했다. 한편, 현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 국가²⁾는 이태리, 독일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고 아시아는 일본 뿐이다. 게다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행한 일본이 12년, 독일은 38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년만인

* 現 은퇴자산관리연구소 소장(E-mail : jinykim61@naver.com)

前 신한은행 신탁연금본부장과 미래설계센터장,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삼성생명 금융연구소 금융전략팀장

1) 고령화 진행단계를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UN의 고령화 기준이다. UN의 고령화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일본보다도 1.5배나 더 빠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인은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³⁾의 노인세대 진입이다. 2020년부터 1차 베이비부머가 만 65세의 노인세대에 진입하고 2033년부터는 2차 베이비부머(1968년~1974년생)⁴⁾도 노인세대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2036년에는 노인 비중이 30%를 넘게 되고, 2050년경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된다. 2018년 현재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4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 1차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과 2023년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세대 진입이 맞물리면서 2020년대는 본격적인 고령화시대가 된다.

초고령화는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가계경제의 경착륙(Hard-landing)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세대갈등과 국론분열, 마이너스 성장의 고착화, 증권시장의 침체와 외국자본의 “脫한국”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공동화 등이다. 더욱이 노인부양 부담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경제의 붕괴,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사회안전망의 취약 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는 장기적인 선제대응이 필요하고 부작용

도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성장형 경제구조의 형성과 몇 차례의 경제위기로 고령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했다.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2005년 퇴직연금제도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건강보험제도의 개편 정도이다. 한편, 고령화로 개별 가계가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자산의 부족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만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은퇴준비가 극히 취약하다. 또한, 부동산에 극도로 편중된 자산으로 은퇴생활비 등을 위한 은퇴소득원도 지극히 부실한 상태이다. 결국, 지지부진한 고령화 정책이나 최악의 시장여건 및 가계경제를 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 및 가계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초 조선일보에 “100세 시대”라는 연재기사의 보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베이비부머의 말년 격인 1955년생이 은퇴세대(만 55세)에 들어 갔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의 고령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자금의 준비이기 때문에 고령화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은퇴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은퇴자금 준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은퇴(만

〈그림 1〉 초고속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2) 2019년 9월 기준으로 노인의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 28.4%, 이탈리아 23%, 포르투갈 22.4%, 핀란드 22.1%, 그리스 21.9%, 독일 21.6% 순이다.
 3) 1차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727만명이며 생년별로는 1955년생 71만명, 1956년생 71만명, 1957년생 69만명, 1958년생 76만명, 1959년생 77만명, 1960년생 85만명, 1961년생 92만명, 1962년생 91만명, 1963년생 88만명, 1964년생 88만명, 1965년생 88만명, 1966년생 88만명, 1967년생 88만명, 1968년생 88만명, 1969년생 88만명, 1970년생 88만명, 1971년생 88만명, 1972년생 88만명, 1973년생 88만명, 1974년생 88만명, 1975년생 88만명, 1976년생 88만명, 1977년생 88만명, 1978년생 88만명, 1979년생 88만명, 1980년생 88만명, 1981년생 88만명, 1982년생 88만명, 1983년생 88만명, 1984년생 88만명, 1985년생 88만명, 1986년생 88만명, 1987년생 88만명, 1988년생 88만명, 1989년생 88만명, 1990년생 88만명, 1991년생 88만명, 1992년생 88만명, 1993년생 88만명, 1994년생 88만명, 1995년생 88만명, 1996년생 88만명, 1997년생 88만명, 1998년생 88만명, 1999년생 88만명, 2000년생 88만명, 2001년생 88만명, 2002년생 88만명, 2003년생 88만명, 2004년생 88만명, 2005년생 88만명, 2006년생 88만명, 2007년생 88만명, 2008년생 88만명, 2009년생 88만명, 2010년생 88만명, 2011년생 88만명, 2012년생 88만명, 2013년생 88만명, 2014년생 88만명, 2015년생 88만명, 2016년생 88만명, 2017년생 88만명, 2018년생 88만명, 2019년생 88만명, 2020년생 88만명, 2021년생 88만명, 2022년생 88만명, 2023년생 88만명, 2024년생 88만명, 2025년생 88만명, 2026년생 88만명, 2027년생 88만명, 2028년생 88만명, 2029년생 88만명, 2030년생 88만명, 2031년생 88만명, 2032년생 88만명, 2033년생 88만명, 2034년생 88만명, 2035년생 88만명, 2036년생 88만명, 2037년생 88만명, 2038년생 88만명, 2039년생 88만명, 2040년생 88만명, 2041년생 88만명, 2042년생 88만명, 2043년생 88만명, 2044년생 88만명, 2045년생 88만명, 2046년생 88만명, 2047년생 88만명, 2048년생 88만명, 2049년생 88만명, 2050년생 88만명이다.
 4) 2차 베이비부머는 2018년 기준 645만명이고, 모든 연령 중 가장 인구가 많은 1968년생(92.5만명)을 포함하고 있다.

55세)와 고령화(만 65세) 이전까지의 일명 “은퇴 크레바스”기간⁶⁾이다. 주택연금의 경우도 제도적으로는 60세부터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60대 중 후반 이후 신청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만 65세부터 나오기 때문에 65세까지 소득단절기가 나타난다. “은퇴 크레바스”는 은퇴 이후 소득이 대폭 줄어들면서 은퇴자산을 은퇴생활비, 창업, 자녀 및 의료비, 증여 등으로 재배분되는 은퇴자산의 조정기이다. 지난 10여년간 언론과 금융권, 정부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수 많은 은퇴 이슈를 이야기했고 또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난리를 친 것에 비해 정작 제대로 된 대응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인 은퇴지원 제도나 여전히 요원하다고 느끼는 액티브한 은퇴생활 등이 현실이다. 더욱이 은퇴자금의 운용여건은 이전 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해졌다. 또한, 우리나라 은퇴계층은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특히, 주택)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 소득절벽에 이어 자산절벽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은퇴문제에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크레바스”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

는 이전의 은퇴세대와 달리 전체인구의 약 15%,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80년대 이후의 다양한 금융제도 선진화와 글로벌 투자상품을 경험한 세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0%가 넘는 고금리, 주가폭등, 국민연금 도입, 금리 및 자본 자유화, 전국민 의료보험, 금융실명제, IMF, 부동산 불패, 리먼사태 등을 직접 겪은 세대이다. 즉, 베이비부머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은퇴 크레바스” 기간 중 자산의 재조정 방향이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2장에서 2018년들어 막내인 1963년생까지 은퇴세대로 진입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크레바스” 기간중 은퇴자산배분 행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은퇴 전후의 퇴직자들이 은퇴준비를 하는 은퇴설계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4장에서는 은퇴자들에 대한 은퇴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은퇴교육의 현실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은퇴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산관리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해보았다.

2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자산 운용 특징

2.1 1차 베이비부머의 위상

1차 베이비부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가구구성이나 직업군, 주거 등을 분류해 보았다. 베이비부머 가구주 중 남자의 비중이 은퇴를 시작한 이후 은퇴 크레바스 기간 중 급격히 줄어들어 2010년 85%

에서 2018년에는 77%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는 베이비부머의 사별이 2010년 5%에서 2018년에 11%로 두배 이상 높아진 것과 이혼이 2010년 11%에서 16%로 늘어난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직업적 특성을 보면 전문직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 5) 고령화는 노인의 기준인 만 65세로 삼고 있으나 은퇴의 경우는 은퇴연령이 다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은퇴분석을 위해서는 은퇴 시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분석에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은퇴 기준을 만 55세로 보고 있다. 2017년에 정년이 만 60세로 변경되었지만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대부분이 55세 정년을 적용 받았다. 따라서 은퇴분석에서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하고 고령화(노인)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 6)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의 갈라진 틈새 낭떠러지로, “은퇴 크레바스”는 은퇴시점에서 국민연금 지급시점까지의 소득단절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2012년부터 언론에서 은퇴과정의 소득단절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표 1〉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특성 비교

가구주		2006년		2010년		2018년	
		명수	비중	명수	비중	명수	비중
조사대상		2,266	100%	2,212	100%	4,044	100%
성별	남	1,872	83%	1,879	85%	3,112	77%
	여	394	17%	333	15%	932	23%
결혼	기혼	1,975	87%	1,785	81%	2,849	70%
	미혼	39	2%	56	3%	124	3%
	이혼	158	7%	250	11%	639	16%
	사별	94	4%	121	5%	432	11%
직업	관리직/사무직	321	14%	384	17%	456	11%
	서비스/판매업	398	18%	482	22%	685	17%
	전문직	339	15%	231	10%	332	8%
	농어업	145	6%	132	6%	301	7%
	기능직/기계조립	719	32%	534	24%	1,003	25%
	단순노무직	159	7%	259	12%	602	15%
	무직/주부/군인	185	8%	190	9%	665	17%
주거	자가	1,568	69%	1,426	65%	2,763	68%
	전세	321	14%	396	18%	488	12%
	월세 등	377	17%	390	17%	793	20%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년

시작되기 이전인 2006년 15%이었으나 은퇴가 시작된 2010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기능 및 기계조립 등의 직업도 전문직과 같이 2006년 32%에서 은퇴가 시작된 2010년에는 24%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관리직/사무직, 서비스업/ 판매업의 비중은 합쳐서 2006년 32%이던 것이 2010년에는 41%로 늘어난다. 특히, 단순노무직은 은퇴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6년에 7%였으나 2010년에는 12%로 이미 직업의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직업지도는 대폭 변화하기 시작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작 전까지 늘어나던 관리직/사무직, 서비스업/ 판매업 비중은 28%로 대폭 줄었고 전문직도 8%로

떨어졌다. 반면, 단순노무직이 15%로 대폭 늘어났고 농업, 어업 등의 비중도 늘어났다. 특히, 2010년 이후 무직 등의 비중이 2010년 9%에서 2018년 17%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편, 주거의 형태가 2010년 전에는 自家의 비중이 줄고 그 만큼 전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가 주택가격의 하락 시기라는 점에서 은퇴 이슈와 함께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주거형태는 전세가 대폭 축소되는 반면 자가와 월세 등의 형태가 대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는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전세가 격의 상승으로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등 최저형태의 주거 비중이 2010년 4.4%에서 2018년 13.7%로 3배

가 늘어났다. 주거형태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빠르게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베이비부머는 은퇴시기 진입 직전의 위상이 자산이나 부채 및 경상소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연령대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0년 1차 베이비부머(당시 47~55세)의 총자산은 평균 약 3.9억원으로 당시 가장 높았던 50대의 3.6억원보다도 약 9%이상 많았다. 순자산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던 50대보다 약 9% 정도 많았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50대보다 높았지만 격차는 7%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 이상 연령대의 부동산 보유가 50대에

이어 가장 많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비중 축소는 다른 자산에 비해 늦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채의 경우는 가장 높은 50대의 평균보다 약 13%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부채를 통한 부동산투자가 많은 세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상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시기인 50대의 평균보다도 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0년의 1차 베이비부머는 각종 자산, 부채, 경상소득 등 모든 면에서 어느 연령대보다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자산과 달리 40대가 가장 높은 금융자산

〈표 2〉 1차 베이비부머의 인당 자산 비교(2010년)

(인당 평균, 만원)

가구주 (평균연령)	30대 (35.1)	40대 (44.4)	50대 (54.0)	60대 이상 (69.8)	BB(47~55) (50.9)	최대 연령대 와의 Gap
총자산	19,333	28,233	35,796	29,381	39,195	9.5%
금융자산	6,380	7,275	6,695	3,806	7,941	9.2%
부동산자산	12,100	19,961	28,131	25,138	30,166	7.2%
부채	3,815	5,339	5,865	3,056	6,628	13.0%
순자산	15,519	22,894	29,930	26,325	32,567	8.8%
경상소득	4,183	4,777	4,647	2,133	5,037	5.4%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년

〈표 3〉 1차 베이비부머의 자산 비교(2018년)

(인당 평균, 만원)

가구주 (평균연령)	30대 (35.6)	40대 (44.8)	50대 (54.5)	60대이상 (70.1)	BB(55~63) (58.9)	최대 연령대 와의 Gap
총자산	31,059	44,322	48,021	41,202	50,223	4.6%
금융자산	10,722	12,587	12,868	7,678	11,988	-6.8%
부동산자산	18,522	29,391	32,766	32,204	35,671	8.9%
부채	7,873	9,896	8,602	5,385	8,287	-16.3%
순자산	23,186	34,426	39,419	35,817	41,936	6.4%
경상소득	5,756	7,107	7,292	3,758	6,433	-11.8%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년



과 경상소득도 2010년에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걸쳐 있던 1차 베이비부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 베이비부머가 모두 은퇴시기에 들어간 2018년(만 55~63세)에 오면 총자산은 여전히 가장 높은 50대보다 높지만 최대치와의 갭은 4.6%로 2010년의 갭보다 절반으로 준다. 금융자산은 50대보다 약 7% 작아졌고 부채는 가장 높은 40대보다 16% 이상 대폭 축소되었다. 부채의 대폭 축소로 순자산은 가장 높은 50대보다 여전히 약 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의 경우는 50대보다 12% 정도 낮고 40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는 가장 많은 50대보다도 약 9%정도 더 높아 2010년 보다 그 갭이 더 확대되었다. 특히, 60대의 경우 부동산자산이 2010년과는 달리 50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1차 베이비부머는 모두 은퇴시기에 들어간 2018년(만 55~63세)에도 자산측면에서는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고 특히, 부동산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50대와 60대의 부동산 규모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이나 부채, 경상소득 등은 유동성 자산의 경우는 이미 50대나 40대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차 베이비부머가 모두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들어간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1차 베이비부머는 부동산자산이 격차가 오히려 높아졌고 이에 따라 총자산이나 순자산이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소득이나 금융자산, 부채 등은 급격히 줄어들어 다른 연령대보다 낮아졌다.

2.2 생애자산주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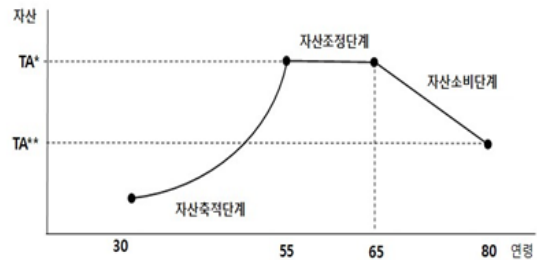
2.2.1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생애자산주기

생애자산은 은퇴이전인 만 5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연령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자산함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2차 함수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은퇴와 함께 소득과 소비지출이 같아지며 저축이 멈추는 시기에서는 은퇴자산 수준에서 자산이 변하

지 않는다. 이후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만 65세의 노인시기에 들어가면 자산을 풀어서 소비로 80세까지 최소 자산을 남기고 소진하는 사이클이 나온다.

이러한 생애 자산 사이클이 기존의 생애주기설과 다른 점은 자산조정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은퇴를 한 시점이 아니라 노인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인식하고 그 기간 중 소비를 커버할 정도의 소득이 창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이 은퇴자산 수준에서 유지되는 구간이 발생하고 이 기간에 자산의 재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후 노인의 단계는 일정하게 소비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모습이 <그림 2>와 같은 생애자산주기의 기본적 형태이다.

<그림 2> 생애자산주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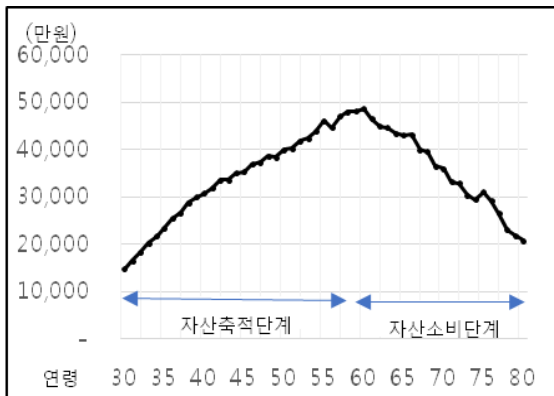
주 : TA*는 만 55세 총자산이며 TA**는 만 80세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을 30세부터 80세까지의 연령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우리나라의 생애총자산주기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자산축적단계와 자산소비단계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가구주의 총자산 생애주기는 평균적으로 만 30세에 약 1.5억원의 총자산에서 시작하여 만 60세에 약 5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만 60세 이후 만 80세까지 총자산은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만 80세에는 약 2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4>와 같이 순자산의 생애주기는 총자산과 달리 “은퇴 크레바스” 기간 중 만 60세에서 만 65세 사이에서 자산의 조정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순자산의 생애주기는 30세에 1.2억원에서 시작하여 만 60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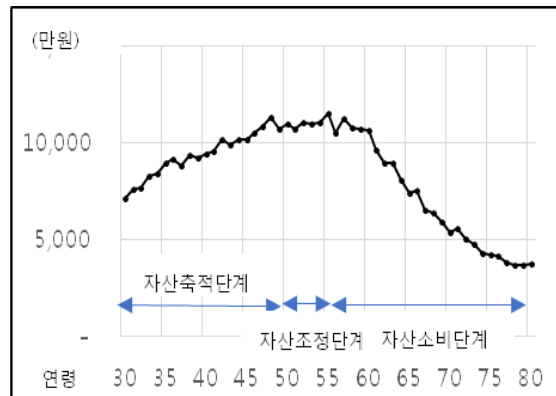
약 4억원 수준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에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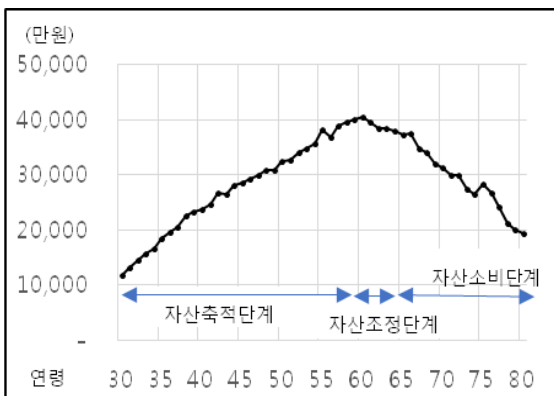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총자산 주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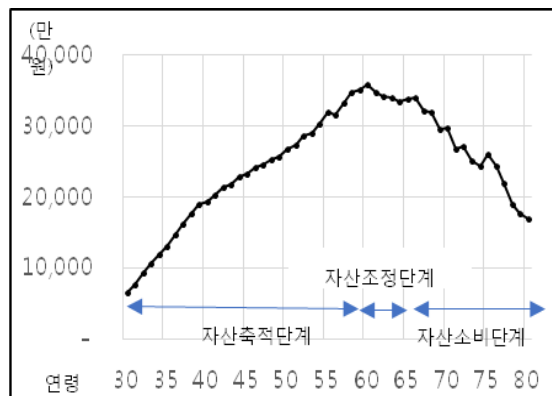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금융자산 주기(평균)



〈그림 4〉 연령별 순자산 주기(평균)



〈그림 6〉 연령별 부동산자산 주기(평균)



주 : 각 연도의 만 30세~만 80세 총자산을 조사표본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주 : 각 연도의 만 30세~만 80세 금융자산을 조사표본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이어서 65세까지의 5년간은 이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만 65세 이후 순자산이 빠르게 축소되기 시작하여 80세에는 다시 30세 수준보다 약간 높은 2억원 내외로 하락한다. 80세의 남은 순자산은 주거목적의 주택이나 전월세보증금이나 상속자산 등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의 생애주기도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정기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자산조정시기가 약 5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자산소비단계도 실질적으로

즉, 실제 금융자산의 추이를 보면 30세에 금융자산 약 7,000만원에서 시작하여 만 50세에 1.1억원까지 증가한다. 이어서 만 55세까지 약 5년간은 이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만 5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금융자산의 하락세는 만 75세까지 이어져 처음 30세 당시 금융자산의 절반 수준인 약 4,000만원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이후 80세까지는 이 수준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의 경우도 생애주기는 다른 자산과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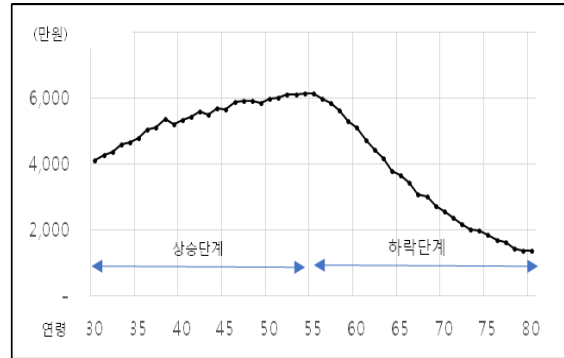


약 5년 정도 늦은 60세까지 축적단계가 이어진다. 자산조정단계는 금융자산 등과 마찬가지로 5년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즉 실제 부동산자산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30세에 부동산자산 약 6,500만원에서 시작하여 만 60세에 3.5억원까지 증가한다. 이후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약 5년간 이 수준에서 조정기간을 거치다가 66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80세에는 부동산 자산이 약 1.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고로 경상소득의 생애주기는 <그림 7>과 같이 역 U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상소득은 증가구간이 만 55세까지 이어지다가 조정기간이 없이 바로 하락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계 통계에서 경상소득은 30세에 약 4,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만 55세에는 약 6,000만원에서 정점을 이루고 바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80세에는 1,300만원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생애자산주기를 자산별로 살펴보면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세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7〉 연령별 경상소득 주기(평균)



주 : 각 연도의 연령별 총자산을 조사표본수로 가평균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첫째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운용행태에서 일명 “은퇴 크레바스”기간에 일부 자산은 자산조정기가 나타난다. 자산조정이 시작되는 시점도 금융자산은 만 50세부터 가장 빠르게 시작되고 이어 순자산과 부동산은 만 60세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조정기간은 세 자산 모두 5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소득과 총자산의 생애주기는 조정기

〈표 4〉 자산별/연령별 생애자산주기 개요

연령	30~50	50~55	55~60	60~65	65~80
금융 = 소득-소비	소득>소비	소득=지출로 금융정체	소득하락 가속 금융하락 시작	· 左同	· 左同
부동산자산	주택구매	대출통한 부동산투자	· 左同	대출 유지로 부동산 정체	대출축소되며 부동산 하락
총자산 = 금융+부동산	저축증가 부동산증가	부동산 증가로 총자산 증가	· 左同	금융자산 하락 부동산 정체로 총자산 하락	금융 부동산 하락하며 총자산 하락
순자산 = 총자산-부채	총자산 증가 부채 증가	부채증가 불구, 총자산 증가로 순자산 증가	· 左同	총자산 하락, 부채도 줄면서 순자산 정체	총자산 하락지속, 순자산 하락
금융자산	Up	Flat	Down	Down	Down
부동산	Up	Up	Up	Flat	Down
총자산	Up	Up	Up	Down	Down
순자산	Up	Up	Up	Flat	Down

간이 없이 축적기에서 바로 소비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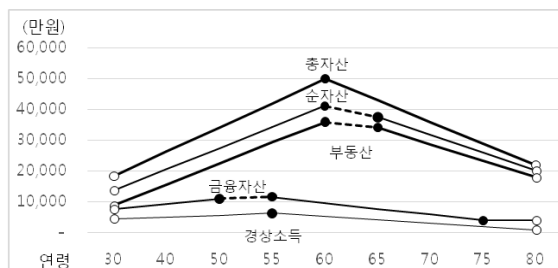
둘째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배분은 은퇴시점 이전 만 50세부터 이미 시작되어 노인세대가 되기 전인 만 65세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만 50세 이전까지는 경상소득부터 총자산까지 모두 증가한다. 반대로 만 65세 이후는 모든 자산이 하락세를 보여 자산배분 구조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 50세 이후 각각의 자산과 경상소득은 정점이 자산마다 다르고 자산조정 존재와 기간이 달라 자산배분 구조가 크게 변화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자산배분 행태에서 부채(대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총자산과 순자산의 경우 모두 60세에서 정점을 이루고 하락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부채가 반영된 순자산의 경우는 60세 이후 부채도 동시에 축소됨으로써 순자산은 만 65세가 되어 서야 하락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금융자산과 달리 부동산자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을 끼고 있어 대출에 대한 행태가 은퇴자산의 배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2.2 베이비부머의 생애자산주기 비교

한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애자산주기와 1차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자산주기를 비교한 것이 <그림 9>와 <그림 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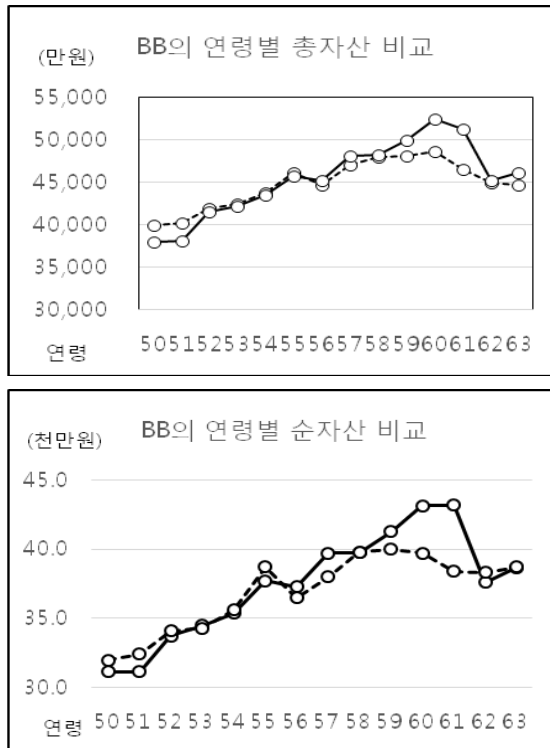
<그림 8> 자산별 생애자산주기 종합



주: 자산별 모형의 연결시점은 해당 시점의 양쪽 모형의 추정치를 평균하여 적용했고, 연결부위의 점선은 자산조정 기간(은퇴 크레바스 기간)을 의미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그림 9> 전체 세대와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비교



주: 점선은 전체 가계의 연령별 평균자산, 굵은 선은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평균자산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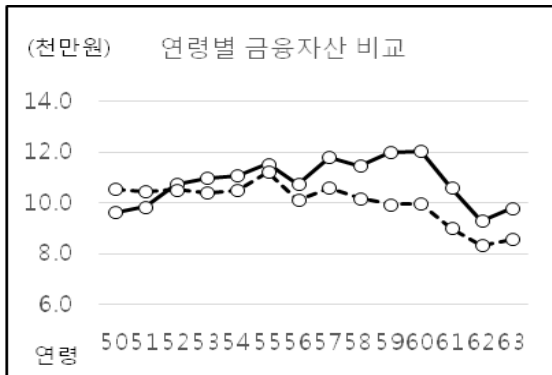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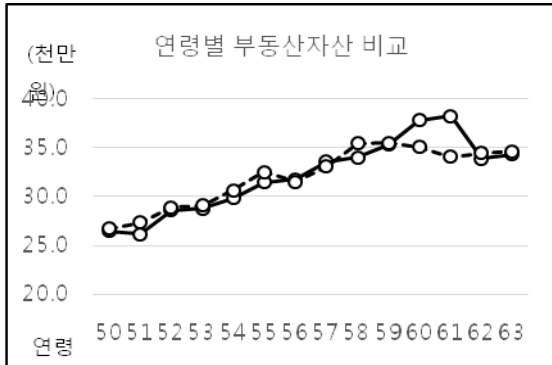
은퇴자산 조정기간 중 1차 베이비부머의 총자산 추기는 60세를 정점으로 축적시기에서 바로 소비시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총자산의 규모가 유독 60대 전후에서 전체 가계의 평균자산보다 10% 이상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순자산의 경우 전체 가구의 경우 은퇴 크레바스 기간이 존재했지만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조정기간이 없이 총자산과 같이 60세까지 축적기가 끝나면 바로 소비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총자산과 같이 60세 전후한 시기에서만 순자산이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자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0>과 같이 부동산자산의 경우 1차 베이비부머는 유독 60세와 61세에서 부동산자산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부동산자산의



over-shooting 현상이 베이비부머의 총자산과 순자산의 구조를 전체 가구와 다르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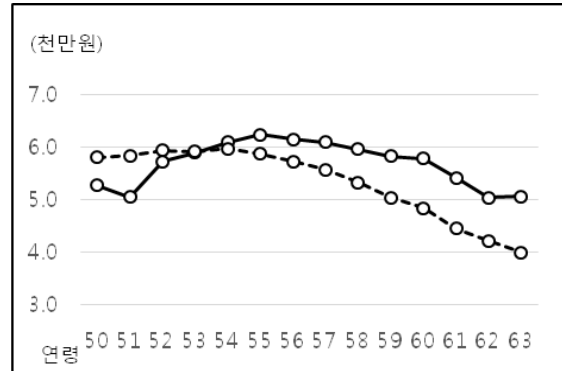
〈그림 10〉 연령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교



주 : 점선은 전체 가계의 연령별 평균자산, 굵은 선은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평균자산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한편, 금융자산의 경우 전체 가구가 만50에서 55세 까지 금융자산의 조정기가 있다. 반면,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만 60세까지 축적단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경상소득의 추이가 전체 가구와 1차 베이비부머 간에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55세 이후 경상소득의 하락세 반전은 전체 가구와 동일 하지만 그 하락속도가 전체 가구보다 매우 완만하다. 따라서 전체 가구와 달리 금융자산의 조정기에도 금융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연령별 경상소득 비교



주 : 점선은 전체 가계의 연령별 평균자산, 굵은 선은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평균자산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결국,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크레바스 기간중의 은퇴자산별 추이를 연령별(만 50세~63세)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나오고 있다.

첫째, 1차 베이비부머는 만 60세에 총자산과 순자산의 정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순자산과 부동산 자산은 정점이 1년 정도 뒤인 만 61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금융자산과 부채도 모두 만 60세에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은퇴자산의 축소시기가 평균적인 가계와 유사한 만 60세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소득 역시 만 55세에 정점을 이루고 있어 전체 가구의 정점 시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가구에서 나타나는 순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에서의 자산 조정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산의 축소시기는 자산별로 전체 가구와 유사한 시기에 시작되지만 차이는 자산 조정기에도 자산의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경상소득이 전체 가구와는 다르게 만 55세 이후에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과 부동산자산에서의 시장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축소기에는 급격하게 전체 가구의 평균수준으로 자산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은퇴

〈표 5〉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후 자산/부채의 변화

(가구주 인당 기준, 만원)

	2006년	증가율	2010년	증가율	2014년	증가율	2018년
총자산(비중)	29,607(100%)	32.4%	39,195(100%)	12.6%	44,124(100%)	13.8%	50,223(100%)
금융자산	6,585(22.2%)	20.6%	7,941(20.3%)	42.4%	11,307(25.6%)	6.0%	11,988(23.9%)
부동산	22,062(74.5%)	36.7%	30,166(77.0%)	-0.8%	29,935(67.8%)	19.2%	35,671(71.0%)
부채(부채율)	4,159(14.0%)	59.3%	6,628(16.9%)	18.8%	7,873(17.8%)	5.2%	8,287(16.5%)
순자산	25,447	28.0%	32,567	11.3%	36,250	15.7%	41,936
정상소득	3,936	28.0%	5,037	17.9%	5,938	8.3%	6,433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전후한 시점에서 부채에 기반한 부동산 투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일반적인 은퇴시점 이후에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소득창출을 위한 취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2.3 베이비부머의 자산배분 특징

2.3.1 은퇴 전후 자산배분행태의 변화

대부분의 고령화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퇴시점을 전후로 자산과 정상소득 등의 둔화 내지 축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도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자. 〈표 5〉에서 보듯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후 자산 배분의 방향을 보면,

첫째,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은퇴가 시작되기 전에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줄어들다가 은퇴가 시작되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은퇴 가구는 은퇴 이후 실물자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이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1차 베이비부머도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계상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할 경우 금융자산의 비중은 약 4~5%p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순수한 금융자산은 은퇴 전이나 후나 총자산의 20% 수준 이내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에 포함된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또는 체감적으로 부동산자산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세제도가 거의 없어 전월세보증금, 특히 전세 보증금은 한국적인 문제이다. 이것이 금융자산으로 들어가며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자산의 비중조차도 실제로는 부풀려져 있는 것이다.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주거와 관련되어 있어 실제 금융자산처럼 유동성이나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 매입시에도 일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자산의 구조는 〈표 6〉과 같다.

우선 재분류시 베이비부머의 금융자산의 증가율도 은퇴시작 이전 4년간 7.4%로 당초 분류시 20.6%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2014년까지의 4년간은 당초 약 42%보다 더 증가한 약 5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8년까지의 4년간은 당초 6%보다 다소 높아진 약 9%를 보이고 있다. 즉,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하면 금융자산의 증가는 은퇴 전후 시점에서의 변화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느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든지 은퇴 전후의 금융자산 비중의 흐름을 보면 명확한 추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2018년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 수준은 실 은퇴전의 비중과



〈표 6〉 전세보증금 조정시 은퇴 전후 자산/부채의 변화

(가구주 인당 기준, 만원)

	2006년	증가율	2010년	증가율	2014년	증가율	2018년
총자산	29,607(100%)	32.4%	39,195(100%)	12.6%	44,124(100%)	13.8%	50,223(100%)
금융자산	5,703(19.3%)	7.4%	6,125(15.6%)	56.9%	9,608(21.8%)	8.6%	10,437(20.8%)
부동산	22,943(77.5%)	39.4%	31,982(81.6%)	-1.1%	31,633(71.7%)	17.7%	37,222(74.1%)
금융부채	3,210(10.8%)	43.1%	4,595(11.7%)	16.4%	5,347(12.1%)	10.0%	5,881(11.7%)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2010년 은퇴 진입 시기 이후에도 중간시기인 2014년에 이미 금융자산 비중이 더 높았다는 사실로 볼 때 은퇴 이후 금융자산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높아진다고 하기 어렵다. 즉, 1차 베이비부머의 경험으로 볼 때 은퇴 이후 금융자산은 독립 변수라기 보다는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대한 니즈가 先반영된 이후의 종속변수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은퇴 이후 일반적으로 부채부담에 따른 부채상환 등으로 가계의 부채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실제 부채비율은 은퇴 시작 이후 은퇴 전보다 부채비율이 더 높아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채 중 현실적으로 부채라는 인식이 낮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은퇴 전 늘어난 수준이 2018년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금리로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동산 편중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필요성 때문에 부채상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은퇴 이전 4년간 부동산자산이 약 37%나 늘었으나 은퇴 이후 4년간은 반대로 금융자산이 42%나 늘어났고 2018년까지 4년간은 다시 부동산이 20%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은퇴 이슈이외에 이 시기의 부동산가격의 변동 등 시장여건도 은퇴자의 자산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2 은퇴자산의 양극화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은퇴자들의 자산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1차 베이비

부머의 자산과 부채 및 경상소득의 5분위 분석을 하였다. 특히, 자산 상위 계층에서의 양극화를 보기 위해 상위 5분위를 다시 4분하여 상위부터 5%씩 구분하여 보았다.

1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을 5분위로 보면 총자산부터 순자산까지 공통적으로 전체의 평균은 중앙의 3분위가 아닌 상위 20%~40%의 4분위와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자산의 5분위는 전체 평균의 3배수준이며 부동산의 경우 3.5배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5분위 내에서도 5-1분위와 5-4분위 간에는 자산별로 4배~5배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5분위 현황을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과 비교해 보았다. 〈표 7〉과 같이 2010년에도 각 자산의 전체 평균은 2018년과 같이 4분위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자산의 상위 5분위도 전체평균의 3.1~3.2배로 오히려 2018년보다 차이가 더 컸다. 그런데 상위 5분위 내의 차이를 보면 2010년에는 자산별로 4배~4.5배로 2018년보다 차이가 적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은퇴 크레바스” 기간 중 자산별 양극화의 변화는 전체 평균과 5분위와의 차이는 소폭 축소된 반면, 5분위 내에서의 차이는 소폭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자산 양극화를 분석한 결과는 우선 모든 자산이 평균자산 규모가 4분위(상위 20~40%)와 거의 동일하지만 상위 20%인 5분위내에서의 양극화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경우 은퇴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었고 특히, 금융자산의 금융자산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7〉 1차 베이비부머의 5분위 비교(2010년과 2018년)

(가구주 인당, 만원)

	2018년					2010년				
	총자산	금융	부동산	부채	순자산	총자산	금융	부동산	부채	순자산
전체	50,223	11,988	35,671	8,287	41,936	39,195	7,941	30,166	6,628	25,447
1분위	2,584	528	-	-	878	2,090	437	-	-	951
2분위	12,396	2,556	7,429	74	10,784	9,605	1,800	5,708	176	6,966
3분위	27,868	5,792	18,639	1,262	23,678	21,085	3,978	14,414	1,373	13,774
4분위	51,138	11,248	36,246	5,609	44,021	40,667	7,773	31,004	5,254	24,737
5분위	154,374	39,814	121,207	34,584	130,442	122,425	25,717	101,880	26,717	80,862
5-1	77,138	18,091	55,997	11,228	65,856	62,942	12,054	49,609	10,565	36,664
5-2	96,054	23,342	68,857	16,791	82,149	79,318	15,429	65,813	14,823	48,020
5-3	132,328	32,620	98,995	26,315	110,485	106,250	22,244	91,448	23,074	71,731
5-4	318,107	85,582	252,257	84,003	263,280	242,475	53,719	207,125	57,889	167,423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5분위 중에서도 상위 5%의 금융자산의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부동산의 양극화도 은퇴 시점 이후 5분위 중심으로 크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대출에 대한 접근성에 기반한 부채의 양극화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의 가용성이 높은 상위 5분위 중심의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인 은퇴 이후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3.3 은퇴 이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

베이비부머의 금융자산 운용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금융자산 중에서 전월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기타 권리금 등을 제외한 순수운용 금융자산을 분석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중 금융자산 상위 5분위(상위 20%)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다.

먼저, 〈표 8〉과 같이 베이비부머가 은퇴시기로 들어간 지난 8년간 예금과 펀드 및 보험의 비중은 늘었고 유동성은 비슷한 반면, 증권투자는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금융자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상위 5분위(상위 20%)의 운용금융자산을 분석해 보았

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 중 금융자산 상위 5분의 포트폴리오가 전체 가계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변화 방향이나 변동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은퇴에 따른 안전성 자산이나 유동성 자산 등의 특정 성향의 특징 보다는 시장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내의 각 생년별 금융자산의 양극화는 은퇴 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유동성의 경우는 50년대생의 경우는 50대 전반에 50년대생의 경우는 50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늘어났다. 반면 보험자산의 경우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가장 양극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은퇴 전후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주식의 경우는 가장 양극화 정도가 높은 금융상품일 뿐만 아니라 60세 전후까지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특정 시점에서 일시적이고 연령이나 은퇴 이슈보다는 시장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운용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베이비부머		2010~2018년 금액 증가율(%)	2010~2018년 비중변화	
전체	운용 금융자산	61.6	14.3% → 18.0% (3.7%p)	총자산대비 비중
	예금 및 펀드	70.6	37.2% → 39.3% (+1.9%p)	운용자산대비 비중
	보험	67.7	33.9% → 35.2% (+1.3%p)	
	유동성	54.2	16.5% → 15.8% (-0.7%p)	
	증권	61.6	12.3% → 9.8% (-2.5%p)	
5분위	운용 금융자산	68.9	14.3% → 19.2% (4.9%p)	총자산대비 비중
	예금 및 펀드	75.9	43.0% → 44.8% (+1.8%p)	운용자산대비 비중
	보험	89.6	24.3% → 27.3% (+3.0%p)	
	유동성	59.9	15.5% → 14.7% (-0.8%p)	
	증권	29.7	17.1% → 13.1% (-4.0%p)	

출처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가계금융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년

주: 유동성 : 현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예금 및 펀드 : 저축예금, 정기적금, 정기에금, 주택청약예금, 개인연금저축, 금전신탁, 즉시연금, 펀드 등

저축성/보장성보험 : 장기저축보험, 개인연금보험, 변액연금, 종신보험, 일시납 즉시연금,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교육보험 등

증권 :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3 퇴직자의 은퇴자산관리 방법

3.1 은퇴자산의 구분과 은퇴생활비 파악

지난 10여년의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에서 보면 55세부터 65세까지의 은퇴크레바스 구간에 있는 퇴직자들의 90% 이상이 “3면 절벽”에 직면했다. “3면 절벽”이란 “연금절벽”, “소득절벽”, “재산절벽” 상황을 말한다. 이 구간은 국민연금 받기까지는 멀고, 퇴직연금은 중간정산해서 받을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으로 받을 게 있다고 해도 대출금 갚는 게 더 유리하니 대부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 쓴다. 게다가 대부분 다른 연금은 넣어 놓은 게 없다 보니 이 구간에서 받을

연금이 없는 “연금절벽”에 직면한다. 한편, 퇴직 후 재취업은 경제여건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프랜차이즈도 내 인건비 빼면 겨우 다행인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경기에 새로운 사업의 시작도 엄두가 나지 않아 결국은 월급이 갑자기 단절되는 “소득절벽”에 직면한다. 마지막으로 초저금리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뒤로 가고 있고 경기가 나쁘다 보니 투자할 곳도 안보여 재산을 생활비로 풀어 쓰니 재산증식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조그만 일을 해보려고 움직이다가 실패하면 그대로 “재산절벽”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런 “3면 절벽”에 직면해도 삶이란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결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표 9〉 은퇴설계를 위한 퇴직자 사례

	주택부문	퇴직금	예적금	펀드투자	국민연금	대출	계	월소득 추정
단순 전체 자산	5억	1억	1억	1.5억	2.5억	△1억	10억	330만원
은퇴용 자산	거주/상속	상환	자녀결혼	1.5억	2.5억	-	4억	130만원
주택연금사용 (60세 가입)	거주/주택연금 (3억)	상환	자녀결혼	1.5억	2.5억	-	7억	230만원

출처 : 중앙일보. 더 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 2019.1.30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막상 이 “3면 절벽”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면 돈을 안 쓰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은퇴생활비가 한계지출까지 떨어지며 은퇴생활이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즉 눈뜨고 알면서도 결국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절벽을 넘어갈 수 있는 “연금다리”, “소득다리”, “재산다리”의 티켓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선택할 수 방법은 최대한 천천히 가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전력 질주해 점프해서 넘어가는 수 밖에 없다.

즉, 건강검진처럼 은퇴설계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가족의 재산현황 리스트를 만들고 향후 은퇴생활 중에 일어날 사항들에 대해 “크레바스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준비에서 은퇴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전준비를 잘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은퇴설계의 시작이다. 그런데 은퇴설계도 건축설계나 건강검진과 같이 잘못된 진단을 받으면 오히려 은퇴생활을 망칠수 있고, 안하는 것 만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은퇴설계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의 하나는 내 재산에서 은퇴자산을 구분해 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퇴생활비를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게 추정하는 것이다.

은퇴설계의 궁극적 목적은 부부가 은퇴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확인하고 모자란다면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은퇴자산은 내가 은퇴할 때 가진 내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은퇴자산은 내 재산 중에서 은퇴 이후 부부가 애들이나 지인에게 손 안 벌리고 은퇴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상속할 집이라 든지, 자녀 결혼이나 유학자금으로 빼 놓은 자금 등은 은퇴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은퇴자산을 물으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말하고 금융기관은 이대로 자산을 입력하기 때문에 은퇴생활비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자산운영도 안전하게만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표 9〉와 같이 어떤 60세 은퇴자가 집 5억원(대출 1억원), 퇴직금 1억원, 예금 1억원, 펀드투자 1억 5,000만원 정도 있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월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자. 국민연금을 85세까지 20년 받는다고 보면 총 2억 5,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은 약 10억원 정도로 나올 것이다. 이 재산을 60세부터 85세까지 단순하게 나누어 보면 월 33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런데 집은 계속 살아야 하고, 퇴직금은 대출을 갚고, 예금은 두 아이 결혼에 쓸 자금이라 하자. 이 경우 은퇴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펀드의 1억 5,000만원과 국민연금의 2억 5,000만원 해서 약 4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 은퇴자산으로는 월 수입을 130만원 정도 밖에 만들 수 없어 부부 최저 월 생활비 177만원보다 턱없이 모자란다. 은퇴생활비는 은퇴이후 써야 할 모든 일중 가장 마지막까지 나가는 돈이다. 그런데 은퇴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 사업 등의 문제가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여기에 먼저 쓰게 되고 결국 뒤에 필요한 은퇴생활비 자금은 항상 부족하게 된다. 은퇴설계의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자산도 자녀 결혼자금처럼 분리해서 꼬리표를 붙여 놓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은퇴설계의 첫 단추는 나의 은퇴생활비를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추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은퇴생활비가 월 50만원 차이가 나면 은퇴자산은 25년치로 약 1억 5,000만원이나 더 필요하게 된다. 이 금액은 앞의 은퇴자의 경우 은퇴자산을 4억원으로 볼 때 38%나 되고 주택연금까지 고려한 7억원으로 보더라도 20%가 넘는 금액이다. 그래서 은퇴생활비를 너무 적게 추정하면 내 은퇴자산이 넉넉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많이 추정하면 은퇴자산이 부족해 불필요하게 불안해지고 무리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은퇴자들은 실제 은퇴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은퇴설계할 금융기관에 입력되어 있는 전체 평균 생활비를 가지고 조금 가감하는 수준에서 정하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연구소 조사는 은퇴후 부부의 적정생활비가 월 244만원으로 나오지만 지역별로는 서울이 285만원, 지방 232만원으로 50만원이나 차이가 있다. 이러한 평균치도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조사되는데 KB골드라이프연구소는 서울과 경기 및 6대 광역시 기준으로 부부의 적정생활비를 월 263만원으로 보는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적정생활비를 서울 321만원, 지방 252만원 등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같은 서울의 연령 60대라도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생활

비 차이가 더 나게 된다. 결국 금융기관에 입력되어 있는 은퇴자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설계를 하는 경우 대부분 내가 아닌 남의 은퇴설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은퇴설계 결과가 나와도 뭔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가족들 문제까지 고려하여 은퇴생활비를 세부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차선으로, 주어진 평균 은퇴생활비에 여러 요소를 가감하여 추정해 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금융기관이 평균 은퇴생활비로 국민연금 기준인 244만원을 사용한다고 하자. 여기에 나만의 가감할 요소를 고려해 보자. 우선 서울 거주하면 생활비가 더 드니 2점, 광역시 0점, 지방의 경우 1점을 뺀다. 본인의 소득수준이 그 지역에서 中上이라고 생각되면 생활비가 평균보다 더 나갈 테니 1점, 보통이면 0점, 中下라면 1점을 뺀다. 부모님이 한 분이더라도 생존해 계시면 생활비가 더 나가니 1점, 두분 모두 안가시면 0점을 한다. 미취업 자녀가 있다면 생활비가 더 나갈 테니 자녀수 만큼 점수를 준다. 그래서 나온 점수당 10%의 비율로 일반적 평균생활비에서 가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보면 서울거주의 소득은 中上, 어머님만 생존해 계시고 두 자녀 모두 미취업인 60세 은퇴

〈표 10〉 은퇴생활비 실태조사(국민연금)

은퇴생활비 (단위 : 만원)		부부기준		개인기준	
		필요적정생활비	필요최저생활비	필요적정생활비	필요최저생활비
전체 평균		243	176	154	108
거주지	서울	284	199	177	122
	광역시	236	174	139	101
	도	233	169	152	106
연령별	50대	268	195	169	120
	60대	242	175	153	107
	70대	209	150	134	93
	80대 ↑	194	139	121	84

출처 :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18.1

〈표 11〉 은퇴생활비 추정을 위한 방법 예시

	거주지	소득	부모	미취업자녀	60대 평균	70대 평균	80대 평균
국민연금 기준 월평균 은퇴생활244만원	√ 서울 2	√ 중상 1	√ 생존 1	√ 2명 2	가점합 6점 (60% 증가) = 390만원	20% 감소 = 312만원	20% 감소 = 250만원
	광역시 0	평균 0	-	1명 1			
	지방 -1	중하 -1	작고 0	0명 0	평균 은퇴생활비 317만원		

출처 : 중앙일보. 더 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 2019.2.12

자를 보면 6점이 나온다. 따라서 60대에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국민연금 평균치인 244만원보다 60% 높은 월 390만원으로 잡는다. 이후 나이가 들면 생활비에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문제가 줄어드니 70대에는 60대보다 20% 낮아진 312만원, 80대는 다시 20% 낮아진 250만원으로 은퇴생활비를 잡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은퇴자의 평균 은퇴생활비는 317만원으로 국민연금에서 제시한 평균보다 30% 높게 잡는 것이다.

은퇴생활비가 추정되면 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은퇴자산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은퇴생활비가 월평균 250만원으로 추정되었다면 여기에 300(60세에서 85세 25년의 경우)을 곱하면 60세에 필요한 은퇴자산은 7억 5,000만원이 된다. 부부 최소 은퇴생활비 180만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산도 5억 4,000만원이나 된다. 나의 은퇴자산과 은퇴생활비를 정확히 알아야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꿀지 제대로 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은퇴생활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 월 250만원을 쓰는데 필요한 은퇴자산이 7억 5천만원이라는 사실에 모두 놀란다. 우선 은퇴 후 생활비 월 250만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우리나라 4,5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후 평범한 은퇴생활에 필요한 부부기준 은퇴생활비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평균한 수치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부부의 최소한 은퇴생활비도 월 176만원이라는 평균치가 나왔다. 그러나 은퇴생활비는 어느 연령대보다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은퇴설계할 때 단순히 평균 은퇴생활비를 그대로 쓰지 말고 본인의 생활스타일을 반영해서 추정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은퇴자산의 개념도 지금 수준에 가지고 있는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은퇴생활비를 월 100만원으로 30년 동안 쓰더라도 360개월로 보면 필요한 은퇴자산은 단순히 합해도 3억 6천만원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 등으로 미래 월 50만원을 받는다면 그것만 해도 360개월하면 1억 8천만원의 은퇴자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 1억 8천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연금이나 저축이 없어도 작은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받는 등의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2 은퇴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은퇴설계를 위한 준비운동도 했고 첫 단추도 끼웠다면 어디에서 은퇴설계를 해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은퇴자가 모두 은퇴설계 상담을 할 필요는 없다. 본인 스스로 은퇴자산과 은퇴생활비를 파악해서 부족하지 않겠다 싶든지, 아니면 그냥 생활비 줄여 쓰자고 판단했다면 굳이 금융기관 찾아가 은퇴설계 상담을 할 필요는 없다. 은퇴설계는 모두 해봐야 하지만 관리할 정도의 은퇴자산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까지 직접 상담하러 갈 필요는 없다. 은퇴자산관리는 내 은퇴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은퇴자산을 운영할 때 내 의사결정에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이제 은퇴설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그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시스템과 상담할 직원이다. 금융기관들의 은퇴설계시스템은 단순 계산기 수준부



터 AI 수준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은퇴설계를 해 주는 상담직원도 체계적으로 상담해 주는 직원이 있는 반면 기계적으로 처리해 주는 직원도 많고 심지어 은퇴설계보다는 상품 파는데만 열심인 직원도 있다. 더욱이 요즘은 은행들이 지점과 인력을 줄이는 추세라 VIP도 아닌 일반고객이 한시간 넘게 걸리는 은퇴설계를 요구하기가 민망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효율적인 은퇴설계 상담을 받으려면 몇 가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은퇴설계시스템에서 필요한 자세한 분석까지 해 줄 수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4가지의 분석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은퇴설계를 해야 한다. 먼저 시작할 때 입력사항이다. 연금이나 예적금 뿐만 아니라 투자한 돈, 보험에 든 돈, 부동산관련 자산, 사업소득, 각종 대출 등과 기간별 은퇴생활비, 자녀들 자금, 병원비 대비자금, 사업자금 등도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둘째는 예상 은퇴기간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은퇴기간중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월별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은퇴설계에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은퇴생활 기간내에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이다. 이게 파악이 되어야 어떤 대응책을 쓸 지 결정할 수 있다. 셋째는 은퇴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 배분 방법을 제시할 때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는 기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상황이나 시장의 상황, 자산배분의 방식 등을 수시로 바뀌어도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은퇴 전후 시점에서 확정된 사항이 별로 없다 보니 은퇴생활 기간중 생각도 계속 바뀌고 시장상황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금융기관에 가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은퇴설계 상담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은퇴설계 후 받아보는 점검결과표가 몇 페이지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간단한 몇 장짜리도 있지만 앞서 말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려면 대략 20 페이지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3 퇴직한 중견부장의 은퇴설계 사례

이제 작년말 퇴직한 중견기업 부장의 사례를 통해 실제 은퇴설계의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자.

김부장(만 55세)은 서울의 자가 아파트에서 노모(84세)와 부인(51세), 대학 3학년 딸(20세)과 대학 1학년 아들(18세)과 살고 있다. 김부장은 현재 퇴직해서 집 근처에 조그마한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김부장의 재산상황을 살펴보면 시가 8억원의 아파트(대출 1억원), 퇴직금은 6년 전에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였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1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적금이 약 3,000만원 있고, 차이나펀드는 반토막나 현재 2,000만원(평가금액), 6개월마다 롤 오버되는 ELS 상품에 2,500만원 정도가 있다. 그리고 20년전에 가입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사망 2억원)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향후 10년간 매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김부장이 생각할 때 은퇴후 생활비는 월 240만원 정도 쓰다가 아이들이 출가한 70대 이후에는 월 150만원, 80세 이후는 약 100만원 정도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퇴 후 사업자금으로 약 1억원, 두 아이들 학비로 4년간 6,000만원, 아이들 결혼(만 30세 전후)할 때 각각 5,000만원 정도 도와줄 생각이다. 한편, 어머님이나 부부의 의료비로 향후 약 30년 정도 매년 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현황을 금융기관의 온라인 은퇴설계시스템에 단순히 넣어보면 은퇴 후 필요자금은 대략 약 10.5억원, 준비자금은 약 7.7억원, 부족자금은 2.8억원으로 나온다. 이는 준비자금 점수로는 73점/100점, 현금흐름 점수는 70점, 안전성 점수는 80점으로 전체 은퇴준비지수는 73점 정도 나온다. 이런 식의 단순한 은퇴설계를 근거로 보통은 부족한 은퇴자금 2.8억원 마련을 위해 적어도 월 100만원 이상 10년간 불입하는 연금보험이나 적금, 적립식 펀드 등이 추천되곤 한다.

〈표 12〉 최초 은퇴설계 입력사항과 자금과부족

필요자금		준비자금	
부부 생활비(현가할인)	7억원	국민연금(부부)	3억원
교육비(2명)	0.6억원	퇴직금	0.3억원
결혼자금(2명)	1억원	예적금	0.3억원
의료비(어머님,부부)	0.9억원	펀드 등 투자상품	0.5억원
사업자금	1억원	사업소득(10년)	3.6억원
필요자금 계	10.5억원	준비자금 계	7.7억원
준비자금 평가	73점	부족자금	2.8억원
현금흐름 평가	70점	종신보험(사망시)	2억원
안전성 평가	80점	주택(시가)	8억원(대출 1억원)
종합 평가	73점		

출처 : 중앙일보. 더 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 2019.4.1

그런데 앞의 은퇴설계에서 보유한 집이나 종신보험(1억원) 등은 은퇴자금이 아니므로 은퇴설계에는 직접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은퇴 준비 상황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추가 적립을 하지 않고도 필요시 종신보험을 해약하거나 집을 조금 줄이므로써 2.8억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매월 200만원 추가 적립은 은퇴후 현금흐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마치 매일 세끼를 라면만 먹고 돈을 아껴 모아 한우사서 냉동실에 몇 년이고 쌓아 놓고 정작 본인은 영양실조 걸리는 형국이다.

오히려 김부장의 은퇴설계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인데 첫째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월 300만원의 수입이 기대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업이 예상과 달리 잘 안 풀리면 준비자금 8억원에서 약 3억원 이상이 날아가는 것이다. 즉, 추정된 준비자금에서 확실하지 않은 사업소득의 비중이 너무 높아 사업소득을 빼면 김부장의 은퇴준비지수는 50% 밑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만일에 대비해 사업소득을 대체,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과 같이 김부장도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은퇴 후 지출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은퇴생활비, 사업자금, 교육비, 결혼자금, 어머님 의료비가 모두 10여년 사이에 집중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퇴 크레바스” 기간이다. 결국 김부장의 은퇴자산관리는 재산을 은퇴 후 10년간 어떻게 굴려야 하는가의 문제로 집약되는 것이다. 김부장의 경우 둘째가 결혼하는 2032년까지의 13간 필요한 자금(6.9억원)이 부인의 수명까지인 전체 은퇴기간(2055년까지 36년) 동안 필요한 자금(10.5억원)의 66%에 달한다. 따라서 은퇴자금 전체의 과부족만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은퇴자금의 가용기간을 향후 13년 이내로 집중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2032년까지의 기간을 잘라서 은퇴자금의 현황을 살펴보자. 이 기간 중 필요자금은 약 6.9억원인 반면 사업소득을 10년이 아닌 3년만 계산(프랜차이즈를 3년 하고 접는다는 가정)하면 가용 준비자금은 2.6억원에 불과하다. 이 기간 중에는 무려 4.3억원이나 부족하게 된다.

먼저 첫째 조정은 필요자금을 줄여보는 것이다. 생활비를 월 200만원으로 줄이고 사업자금도 1000만원 정도 소폭 줄여 이 기간 중 필요자금을 6억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 두번째 조정은 추가



〈표 13〉 2032년까지의 은퇴설계 입력사항과 자금과부족

필요자금(~2032년)			가용 준비자금(~2032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부부 생활비(현가할인)	3.9억원	3.1억원	국민연금(4년)	0.4억원	0.4억원
교육비(2명)	0.6억원	0.6억원	예적금	0.3억원	0.3억원
결혼자금(2명)	1억원	1억원	사업소득(3년)	1.1억원	1.1억원
의료비(어머님, 부부)	0.4억원	0.4억원			
사업자금	1억원	0.9억원	주택담보대출 추가	-	1억원
			퇴직금	0.3억원	해외채권
			펀드 등 투자상품	0.5억원	해외채권
			종신보험계약(0.9원)	-	해외채권
			해외채권(8%)	-	3.2억원
필요자금 계	6.9억원	6억원	준비자금 계	2.6억원	6억원
			부족자금	4.3억원	0
			종신보험(사망시)	2억원	0
			주택(시가)	8억원 (대출 1억원)	8억원 (대출 2억원)

출처 : 중앙일보. 더 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 2019.4.1

자금조달 방안을 찾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추가 대출하여 초기 사업자금(0.9억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투자운용해야 한다. 세번째 조정은 장롱을 뒤져 놓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사망시에나 받게 되는 종신보험을 해약하여 그 자금(해약금 약 0.9억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30년 뒤 2억원 사망보험 받으면 현재가치로 보면 1억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네번째 조정은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종신보험 해약 자금, 퇴직금과 기존 투자상품 매각 자금을 모두 모은 1.8억원을 연 8% 정도 수익률의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녀 결혼 등에 맞춰 5년마다 해외채권을 부분 매각한다는 가정하에 이자를 합친 자금은 약 3.2억원이 기대된다. 만일 다행히 사업소득이 당초 계획대로 들어와 준다면 해외채권의 일부를 매각하여 주택대출 상환에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자금조정을 하면 준비자금 점수는 100점, 현금흐름 점수는 90점, 안전성 점수는 70점으로 자금의 수급은 상당히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단지, 투자위험이 당초보다 다소 높아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결국 사업 리스크를 금융투자 리스크로 대체한 셈이다.

2032년 이후는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이 매우 단순해진다. 추가 필요자금은 3.6억원인 반면 남은 준비자금은 국민연금 2.6억원으로 약 1억원이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점(남편이 만 68세)에서 아예 집을 팔고 작은 집(시가 4억원)으로 옮겨 2억원의 대출을 갚고 나머지 1억원은 추가 의료비 등 비상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집은 나중에 상속하면 된다. 또 다른 방안은 대출금만 없애고 시가 6억원의 집으로 옮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60만원이 나오므로 국민연금과 함께 월 2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표 14〉 2023년 이후 은퇴자금 수급여건

필요자금		준비자금		
			집 축소	주택연금
부부 생활비(현가할인)	3.1억원	국민연금(부부)	2.6억원	2.6억원
의료비(어머님, 부부)	0.5억원	주택매각 차익	2억원	-
		주택연금(23년)	-	4.4억원
필요자금 계	3.6억원	준비자금 계	3.6억원	7억원
		잉여자금	1억원	3.4억원
		주택(시가)	4억원	부부종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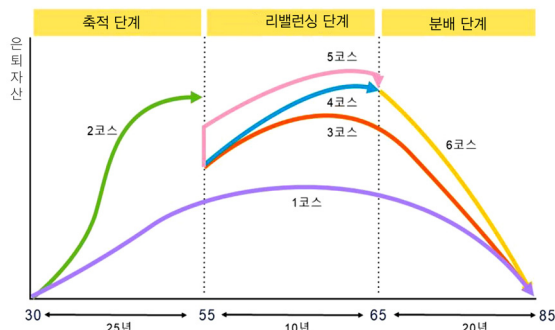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더 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 2019.4.1

3.4 은퇴자산관리의 솔루션

우리가 은퇴설계를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은퇴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은퇴자산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해야 하는 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어떤 은퇴상품을 써야 하는 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은퇴상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은퇴상품은 고금리상품이나 중위험중수익상품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 개념적이고 마케팅적인 용어인 것이다. 예전에는 보통 연금류의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말로 써왔다. 그러나 요즘은 은퇴상품은 은퇴용 자산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또는 적합하게 튜닝한 또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은퇴자산을 굴리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전생애에 걸친 은퇴자산관리의 3개 구간과 6개의 코스, 코스별 은퇴자산의 구성, 그리고 각각의 구성에 맞는 구체적 은퇴상품들이다. 우선 전 생애에 걸친 은퇴자산관리는 크게 연령대별로 3개의 구간이 있다. 은퇴자산을 모으는 퇴직전까지의 축적구간(만 55세 이전)과 은퇴자산을 재점검 해야 하는 크레바스구간(55세~65세), 본격적인 은퇴생활기로 상속증여까지 포함하는 은퇴자산의 분배구간(65세 이후)이다. 한편, 이

은퇴자산관리의 3개 구간과 6개 코스



출처 :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김진영, 2013.

세개의 구간에서 은퇴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크게 6개의 코스로 정리할 수 있다. 제 1코스는 전 생애에 걸쳐 은퇴자산을 운영하는 코스이다. 이 코스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국민연금이다. 축적기간중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크레바스 구간에서 조정여부를 한 번 판단하고 65세 이후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대부분의 연금상품이 원칙적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나온 상품들이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품들을 은퇴상품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나 연금 저축 등 대부분의 연금상품이 실제로는 축적단계가 끝나면 이후 연금으로 받기 보다는 크레바스 구간에서 목돈으로 받는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55세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그림 12〉 금융자산규모와 은퇴상품 포트폴리오

1차 베이비부머의 금융자산

금융자산	인당 평균	5분위 세부	인당	고객분류
5분위 (상위 20%)	12.1억	5-4(상위 5%)	25.2억	UHNW
		5-3(5~10%)	9.9억	HNW
		5-2(10~15%)	6.9억	Mass Affluent
		5-1(15~20%)	5.6억	
4분위 (20~40%)	3.6억			Mass
3분위 (40~60%)	1.9억			
2분위 (60~80%)	0.7억			
1분위 (80~100%)	-			

은퇴상품의 포트폴리오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년

주 : 은퇴상품의 포트폴리오에서 연금상품 : 투자상품 : 절세상품 비율이 5 : 3 : 2

받겠다는 사람이 전체의 2%가 안된다. 그냥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연금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무색하다. 그도 그럴 것이 퇴직연금의 5년이나 10년 운영수익률이 금융권 구분없이 대강 2~3%로 대출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제 2코스는 직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은퇴자산을 모으는 코스이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재테크가 대부분 이 제 2 코스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들도 원래는 제 1코스의 운용상품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시점에서 목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제 2코스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그런데 은퇴용이라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은 수익률 등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금액이 작고 퇴직연금은 중간정산한 사람이 많아 실제 은퇴생활에서 보면 최저생활비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운용방식인 제 3코스부터 제 6코스의 자산운용을 위한 은퇴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다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상품들이 은퇴용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금융상품들을 은퇴용으로 포장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퇴

상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크레바스 구간에서 제 3코스는 퇴직시점에서 은퇴자산이 부족해 수익률 중심의 투자를 하지만 동시에 소득도 필요한 경우이다. 월지급형태로 인출해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금인출로 복리나 재투자자가 없거나 작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방식이다. 제 4코스는 퇴직시점에서 은퇴자산이 부족해 짧은 기간중 필요한 은퇴자산의 갭을 메우기 위해 복리나 재투자 등을 통한 수익률 중심의 투자를 하는 금융상품들이다. 일반적인 투자상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은퇴자산이라는 성격상 투자위험을 많이 통제한 상품들이다. 제 5코스는 은퇴자산의 부족을 부동산 등을 유동화하는 등 조정해 투자자금을 만들어 제 3코스나 제 4코스처럼 운영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산의 분배구간에서는 이전 여러 코스의 연장선과 함께 제 6코스처럼 순수한 분배용 상품들로 운영하는 새로운 코스도 있다. 제 6코스의 운용상품들로는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처럼 아예 분배용으로 나오는 상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해외채권, ELS 등으로 분배용(연금형태)으로 만든 다양한 은퇴상품들이 있다.

한편, 6개의 코스 중에서 퇴직 전후 시점에서 은퇴자산이 많이 부족해 수익률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하지만

〈표 15〉 은퇴자산관리의 은퇴솔루션 개요

	Items	Contents	Platform
은퇴 마케팅	은퇴강좌	핵심고객의 은퇴교육 과정에 참여	회사 프로그램, 외부 전문업체 연계등
은퇴 제안영업	은퇴설계	적정성, 리밸런싱, 세금, 운용방안 등 시스템 활용	My Data시스템(On/Off), 센터, 교육
은퇴계좌	은퇴통장	은퇴소득(연금) 통장	은행전용통장, 은퇴전용CMA
	은퇴카드	은퇴소비 관리, 멤버수비카드, 비재무서비스 등	통장연계 전용카드
	연금 Plan	연금 Plan은 일종의 연금펀드 개념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AI운용체계
	은퇴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절대수익펀드, ETF, 해외펀드, 부동산펀드, ELS 등 중위험중수의 개념상품으로 구성	Wrap Account, AI 펀드
	신탁계좌	자산관리계좌로 은퇴상품 포트폴리오로 운영	일입형 신탁계좌, 종합재산신탁계좌, ISA 등
	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치매신탁, 부동산신탁, 생명보험신탁 등	신탁자산별 관리전문사 연계
기타	대출	주택연금, 상가투자	주택연금, 주담대

동시에 생활에 필요한 소득도 빼 써야 할 때의 운용방법인 제 3코스를 보자. 이 코스 방식의 운영은 매월이든 받기든 돈을 주기적으로 빼야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에서 복리효과나 재투자효과가 없거나 작아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상품보다 수익률도 높아야 하고 주기적인 인출도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상품은 대부분 투자위험이 높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봐야 한다. 게다가 그것을 언제 투자해야 하는 가도 문제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제 3코스 개념으로 운용해 볼 수 있는 상품은 ELS랩이나 ELS변액연금 등 ELS를 이용한 상품군이 있고, 부동산 펀드 중에서 수익형부동산을 운영하고 분기나 반기에 지급이 나오는 펀드군이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브라질채권 등 특수한 채권을 이용한 자금운용도 가능하다.

4 은퇴교육과 제도개선 필요성

4.1 은퇴준비에 대한 은퇴자들의 인식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터널 진입 10년의 경험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된 은퇴설계를 해본 은퇴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1차 베이비부머 700만명 중 은퇴설계라는 것을 해 본 고객은 1%도

안되는 것 같고 그나마도 간단한 은퇴설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은퇴설계 받을 곳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도 지난 10여년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은퇴설계서비스는 많이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은퇴설계를 해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은퇴준비를 하는 본인 스스로에서



찾을 수 있다. 나의 재정상태는 현재 어떤 지, 향후 우리집에서 챙겨야 할 사항은 무엇인 지, 우리 부부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등에 대해 매일 고민과 걱정은 많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은퇴시기로 들어간 1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은퇴설계를 다시 해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 빨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도 1차 베이비부머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은퇴설계를 배워 미리 은퇴준비를 할 시기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퇴자들을 이처럼 우물쭈물하게 만드는 것인가? 첫번째는 은퇴설계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를 몰라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고객에게 은퇴설계를 제안했을 때 나오는 반응은 대부분 “나는 재산도 없는데 뭘 해? 창피하게...”, “그냥 나 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뭘...”, “나 그런 거 몰라 집사람이 다해, 나는 주는 대로 쓰는데...” 등 이런 식이다. 적어도 은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위의 부모님 세대와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은퇴생활을 30년 넘게 해야 하는데 건축할 때 설계도나 정기 건강검진과 같이 은퇴설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두번째는 자신의 재산상태를 너무 모른다. 남자는 은퇴자들의 경우 “三不知”가 있다. 자녀가 어떻게 대학 들어 갔는지를 모르고, 우리집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며, 마지막으로 부인이 언제까지 같이 살지를 모른다. 심지어 매년 3,000명이나 퇴직하는 국내 최대 전자회사가 퇴직부장들에게 나누는 퇴직생활안내 책자에 이런 게 있다.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법;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 가면 먼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전광판에 번호 나오면..., 운전면허증 따는 법... 등등. 중고등학생용 생활안내서가 아니라 직장생활 30년 넘게 한 사람들에게 주는 안내책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돈 문제는 관리를 부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 남자들의 금융상식은 거의 초등학생 수준에서 멈췄다. 은퇴설계를 위한 상담에서도 재산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나오는 말이 “오래전 아는 사람이 사라고 해서

투자한 펀드가 있는데 무슨 펀드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은 반 토막 난 것 같던데...”, “옛날에 친척이 권유해서 보험을 들어줬는데 생명보험인지 저축보험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유효한지도 잘 몰라...”. 이 정도면 은퇴상담을 가봐야 은퇴설계는 불가능하다. 요즘은 금융권에 있는 내 이름의 돈을 예금이든 보험이든 주식이든 카드나 대출도 한번에 알 수 있는 앱이 많다. 연금상품 정보는 “통합연금 포털”에서, 다른 금융상품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 요즘 회자되고 있는 민간의 돈 관리 앱 “뱅크***” 등을 찾아보면 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부부간에 서로 판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부간 재산정보의 공유가 어렵다면 주로 돈을 관리하는 분, 예를 들어 부인일 경우 부인이 남편의 재산정보를 받아 은퇴설계를 받아 보도록 하면 된다.

세번째는 은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장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은퇴생활에 직면하면 은퇴자금이 많은 적든 앞으로 지출할 것들이 너무 많아 뭐하나 쉽게 투자나 지출을 결정하기 어려운 결정장애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은퇴자금이 자녀, 사업 등 다양한 이슈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자녀 결혼 등 나갈 것은 천지인데 지금 가진 것은 거기에 비해 항상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하니 머리만 아프고 답은 안 보인다. 은퇴설계를 통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먼저 자녀나 사업, 여행 등에 대해 부부, 나아가서는 가족내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과 사전 준비없이 은퇴설계 상담을 하는 것은 마치 아무 생년월일시나 대고 사주를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은퇴하면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는데 이보다 더 먼저인 것이 나의 “크레바스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줄지,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최대 쓸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지,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부부가 합의해 놓아야 한다.

1차 베이비부머의 경험은 은퇴 후 자금운용이나 사업에서 정답이나 쉬운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이 하는게 모두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주변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설계가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 수 있다. 실제 은퇴문제는 대부분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은퇴자금을 가족과 사업과 은퇴생활에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완하여 운영할 때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재취업할 연봉이나 조건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은퇴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과 의사결정 사항이 은퇴 전후 쏟아진다. 또한, 은퇴생활은 주어진 은퇴자금을 단순히 쪼개서 쓴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본인의 은퇴자금 운용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투자위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산관리와 은퇴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은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퇴생활과 관련할 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과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다.

4.2 은퇴교육의 현실과 개선 방향

은퇴교육의 범위는 크게 은퇴자산관리교육, 전직교육(Out-placement)교육, 은퇴라이프교육 나누어 볼 수 있다. 은퇴자산관리교육은 은퇴생활을 뒷받침할 은퇴자산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관리 및 운용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교육이다. 주로 금융교육이지만 은퇴자산의 관리가 가족이나 은퇴생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라이프와 연계된 은퇴자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전직교육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퇴직자 개별상담 중심의 교육이나 또는 대기업 임원급 등을 대상으로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전문화된 전직교육이다. 한편, 은퇴라이프교육은 은퇴생활과 관련된 건강, 취미, 가족관계, 인문학 등의 전반적인 은퇴생활 교육이다. 전직교육전문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재취업에 중점을 둔 교육과 상담이며, 은퇴자산관리교육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은퇴마케팅의 일환으로 일회성 행사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은퇴라이프교육은 주로 관공서 중심의 복지센터나 시니어 지원센터에서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세가지 교육을 섞어서 하는 데 단지, 그 중에서 어느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지와 심도에서 차이가 있다.

은퇴교육의 순서를 은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교육은 은퇴전에 받는 은퇴자산관리교육이며, 다음으로 퇴직 바로 전후의 전직교육이고, 마지막으로 퇴직후에 받게 되는 은퇴라이프교육이다. 특히, 은퇴자산관리교육은 은퇴자금을 파악하고 배분해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은퇴자산관리교육에서의 은퇴설계에 따라 은퇴 이후 발생하는 필요자금을 어느 순서로 얼마나 배분해야 하는지 개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은퇴자금의 여력과 운영방향을 알아야 어느 수준의 재취업을 수요해야 하는지, 은퇴생활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자녀나 사업 등 다른 목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전직교육을 위해서도 은퇴자산관리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 초기에는 낮아진 연봉의 일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은퇴생활이 길어질수록 나중에는 처음의 일자리도 수용하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자리에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 은퇴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운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액티브한 은퇴라이프를 위해 버킷리스트를 정해 실행하려고 해도 막상 필요한 자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생활을 위한 은퇴자금의 여력은 미리 판단해 봐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은퇴관련 교육 중에서 은퇴자산관리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은퇴전에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퇴직한 은퇴자들을 교육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 가이다. 은퇴 전에 이미 가족 간에 은퇴자금에 꼬리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회사 관점에서는 퇴직직원의 교육은 직원에 대한 “유종의 미”를 가져올 마지못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은퇴생활은 퇴직금 주면 알아서 한다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퇴직직원들의 은퇴생활이 Soft-landing할 수 있도록 마지막 배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은퇴교육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은퇴자산관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은퇴자산관리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은퇴자산관리교육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품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해결책보다는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하고 일방적인 강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육전체의 일관상이 있어야 하는데 강사마다 다른 주장을 해서 정작 의사결정을 배우려 왔는데 오히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은퇴설계도 금융권에서 시간관계상 거의 계산기 수준의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결과표를 봐도 별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은퇴교육이란 무엇인가? 크게 5가지의 주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

첫째는 퇴직자가 퇴직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야 할 기본사항에 대한 교육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연금상품의 운용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실업보험과 건강보험료 활용방안, 종합소득세 등 절세방안 등이 다루어 져야 한다. 현재도 이러한 주제가 교육과정에서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홈페이지에도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로는 본인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은퇴라이프 교육인데 은퇴자산관리교육에서 은퇴라이프교육을 포함하는 이유는 은퇴라이프에 대한 고민과 방향을 은퇴자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할 지 알려면 은퇴생활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해야 필요자금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은퇴설계교육이다. 이는

은퇴자금의 현황파악과 향후 필요한 자금의 추정, 자산배분이나 운영방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만의 최적 솔루션을 찾는 실전교육이다. 네번째는 실제 은퇴자산으로 운영할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에 대한 교육이다. 특히,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돈을 굴리고는 싶은데 위험해 보이고 구조도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등등. 이런 고민만 하다가 결국 예금으로 넣어 놓고 빼 쓰는 식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퇴용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위험, 은퇴용으로 쓰는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마지막 주제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다. 여기는 전직 교육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등의 창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재취업과 사업의 위험에 대한 교육이다. 요즘 가장 잘 되는 사업이 “퇴직자 사기사업”이라고 할 만큼 퇴직자 대상의 사기성 투자권유가 많다.

한편, 은퇴교육이 한 방향의 강의로 끝나거나 후속된 실행이 없는 공허한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확인과정이 포함된 교육이어야 한다. 더욱이 은퇴자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들 대비 54%로 절반 수준이고 70대 이상의 경우는 일반 국민대비 29% 수준에 불과하다. 중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60% 정도로 일반인들의 90%에 비해 매우 낮고 스마트폰 보유율도 아직 57%에 불과하다. 더욱이 간편결제서비스는 60대가 4%, 70대는 1.7%만 사용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의 65세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온라인 금융상품 구매비중도 50대는 6.3%, 60대 이상은 1.8%에 불과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및 유튜브 설명서 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모바일기기 사용능력의 취약으로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은퇴자의 교육이 온라인만으로 커버되기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은퇴교육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실제 효과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은퇴교육이 모든 은퇴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은퇴자금이 갑자기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은 피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은퇴자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10년 배운 것 가지고 30년을 써왔다. 이제 다시 30년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등산에서 올라갈 때 쓰는 근육과 내려갈 때 쓰는 근육이 다르듯이 은퇴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지금까지 아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도 은퇴자들이 대부분 내려갈 때도 등산 모드를 바꾸지 않고 올라가던 방식 대로 하나까 어려움과 위험에 봉착하는 것이다.

4.3 은퇴관련 제도적 개선 제언

지난 10여년간 고령화와 은퇴 쓰나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적연금의 활성화나 신탁업법의 개선 등 여러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는 없고 여전히 논의만 무성한채 지쳐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퇴직연금이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로 정기예금보다도 낮고, 기금화도 지지부진한 데다가 수익률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DB든 DC든 퇴직연금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형이라 처음부터 예금금리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원리금 비보장형에 들어가는 펀드들도 시중의 펀드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퇴직연금의 상품은 고객이 선택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어찌 보면 금융권간 운영능력의 차이라기 보다는 금융사의 퇴직연금 고객군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 좀 더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상품을 골라서 추천할 수 있는가의 차이는 있다. 결국 문제의 근간에는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회사 담당자, 가입한 직원,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당국 누구도 수익률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기금화를 해도 기금운용위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원리금보장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야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원리금보장과 원리금비보장으로 양분하는 방식은 고객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금융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도 어렵다. 현재의 체계에서는 원금만 보장하는 상품은 원리금 비보장으로 분류되어 완전 비보장상품과 섞여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서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운용수익률의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운용방식의 분류를 원리금보장, 원금보장, 원리금 비보장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신탁기능의 활성화이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2000년 대들어 대거 신탁업법을 개선하여 미국식의 개인신탁기능을 활성화했다. 일본의 경우도 2007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대대적으로 고칠 때의 명분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기능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미 2012년 신탁법이 개정되었으나 신탁이 자본시장법에 통합되면서 신탁업법은 10년이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신탁계좌는 가장 대표적인 은퇴계좌이며 가장 포괄적인 자산관리 수단이다. 특히, 종합신탁계좌는 은퇴자들의 자산운용과 상속문제 등을 일괄로 처리해줄 수 있는 일임 종합계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금융계약인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신탁자산의 운용은 가장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감독되며 신탁자산을 종합 운영하는 금융사는 초대형 금융기관이고 전문분야만 취급하는 전문신탁사도 많다. 우리나라는 2016년 대대적인 신탁업법 개정작업이 있었으나 결국 업계의 기득권 싸움과 신탁은 부자들 상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묻혀버렸다.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상품은 사실 젊었을 때부터 은퇴자금을 모으는 저축상품이다. 즉, 소득으로 은퇴자산을 만드는 상품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은퇴한 사람들의 자산으로 은퇴생활비와 목돈, 상속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은퇴계좌는 없다. 외국에서는 그것이 신탁계좌인 것이다. 현대 금융에서 신탁업법의 전향적인 개편 없이 고령화 대응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한편, 은퇴자산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My Data 사업이다. 개인금융



정보와 관련한 정보사업은 먼저 신용정보와 관련한 신용정보사업(CB사업 포함)에 이어 개인의 모든 카드 포함 결제정보를 제공 및 분석해 주는 가계부서비스사업이 있고, 금년부터 개인의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해주는 My Data 사업으로 발전 중이다. 2018년 7월 정부가 금융분야 마이 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 후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상태이다. My Data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 거래 및 자산정보를 결합하여 온라인상에 다양한 개인 자산관리관련 정보종합과 분석 및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향후 개인자산관리(PMS)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콘텐츠도 매우 다양하고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My Data 서비스는 개인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현실적으로 자산관리에

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객의 정확한 자산 정보인데 이는 고객 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프로세스의 병목 같은 문제를 가져온 사항이다. 자산관리의 솔루션 측면에서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결제관련 계좌유치, 자산정보 파악 비용 및 시간 최소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산관리 영업의 효율화, 창구의 부담의 최소화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고객 자산의 운용성과 없이 단순한 고객의 자산잔고 정보만으로 시스템화된 자산관리체계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실제 자산관리를 활성화시키려면 My Data의 범주에 금융자산 운용성과 정보와 함께 개인의 부동산 정보와 세금 정보 등도 함께 포함되도록 확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진영, “은퇴세대의 자산배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자산배분 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9.
- _____,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홍익출판사, 2013.
- _____,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 1~7회, 중앙일보, 더 오래 섹션, 2019.
- 남상호,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2011.
- 박해식·임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소득·자산 구조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 시리즈 2013-06호, 2013.
- 백은영, “베이비부머 가계 은퇴진전에 따른 재무행동 변화와 자산선택 행동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제33권 4호, 2017.
- 삼성증권, 『직업별로 알아보는 은퇴설계』,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 2013.
- 신한은행, 『행복한 미래설계』,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2015.
- 이창희, “가계자산 축적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연구 :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18.
- 조세형·이용민·김정훈,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2017.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1, 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17권 18호, 2017.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
- _____, “가계금융조사”, 2010~2011.
- _____,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8.
- 한국금융연구원,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소득·자산 구조와 시사점”, 금융 VIP 시리즈 2013-06호, 2013.
- 황순기,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및 공적연금”, 유라시아연구 제10권 1호, 2013.
- Davis, Philip E. and Li, Christine, “Demographic and Financial Asset Prices in the Major Industrial Economie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Discussion Paper, London : Brunel University, 2003.
- Jappelli, T., “The Age-Wealth Profile and The Life-cycle Hypothesis : a Cohort Analysis with a Time Series of Cross-Sections of Italian Households,” *Centre for Studies in Economics and Finance*, Vol.45, 1999.
- Modigliani, F., “Life cycle, Individual thrift and the wealth of n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6, No.3, 1986.